

공명조(共命鳥)와 비익조(比翼鳥)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공명조와 비익조라는 상상의 동물이 있다. 공명조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새다. 두 머리가 먹이를 놓고 서로 경쟁하던 공명조는 한 머리가 다른 머리를 질투해 독을 먹고, 한 몸이라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고 말았다. 한편, 비익조는 수컷과 암컷이 하나씩의 날개만 가졌다. 각자의 날개로는 날 수 없어서 둘의 날개가 짝을 이뤄야 하늘을 날 수 있다.

한 머리가 독을 먹고 공멸(共滅)한 공명조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두고 심화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 같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임시로 운항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마침내 이달 5일 행정부시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건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 추진을 강행하자 무안군 지역사회의 반발이 엄청났다. 군의회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운항을 추진해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실익 없는 행정 낭비를 초래한 광주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노력의 배경엔 관광업계의 피해 극복이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인해 560개 업체에서 약 2만명이 해외여행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관광업계 피해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도의 668개 여행업체 예약도 96%나 취소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비현실적인 광주공항의 임시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제선 운항의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서둘러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보다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항 운영과 관리의 주체인 국토부의 태도도 미온적이고, 전남도와 무안군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추진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잘 알면서도 국토부를 조르는 광주시가 답답할 따름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전남도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관광체육국 등 공항 활성화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정취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계획을 물었고, 전남도는 7월까지 활주로 연장, 항행안전시설 개선,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전남도지사에게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제 광주시도 전남도의회, 전남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남 및 광주 관광업계 모두 고사하기 직전인 상황에 가능하지 않은 임시취항으로 때를 쓰면 안 된다. 실익 없이 소모적이고, 갈등만 조장한 광주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명조는 먹이를 독차지하려다 결국 자신을 해쳤고, 비익조는 하늘을 날기 위해 서로가 협력했다. 전남도, 무안군, 광주시 모두 안전한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아 지역 경제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익조가 되어 날아야 한다.

社說

대전환의 시대, 주목할 총장로 상생협약

임차인·자영업 등 상생 의미 커

광주 총장로1·2·3가 상인회와 상가 건물주, 동구가 '상생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총장로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고육책일 것이다. 이번 상생 협약으로 한 때 영화를 누렸던 총장로가 상권을 회복하고 오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현재 총장로1·2·3가 상가 공실률은 전체 점포 393개 중 영업 점포 305개, 빈점포 88개로 22.4%에 이른다. 총장로 4·5가는 이보다 높은 29.9%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총장로 건물주는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하해서 공급하고 최소 2년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총장상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도 다짐했다. 광주시와 동구도 상가 공실 반값 임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급

이 과잉이거나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총장로 상권이 침체된 근본적 원인이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아 진입하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가게가 유입돼 공실을 줄이고 시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반값임대료로 상권이 살아날 경우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상가의 생태계가 바뀌어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는 장점도 크다. 공실로 임대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반값 임대료를 적용하면 부분적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당장은 손해로 보일지 몰라도 건물주 입장에서 이익인 셈이다. 임차인과 자영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공실이 늘어나면 상권이 무너지고 추가 이탈에 따른 공실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상인회와 건물주,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이 총장상권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대세가 된 대전환의 시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총장상가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강진 반값 여행 긍정효과 전국 확산돼야

올해도 2만844팀 사진신청

강진군의 '반값 여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도 2만1000팀 가까이 반값여행 사진신청을 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첫 시행 후 2년차를 맞는다. '강진 반값 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는 누구나 여행비 절반을 개인은 최대 5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강진 반값 여행은 이미 1만998팀이 강진에서 28억9000만원을 소비해 13억200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 신청자에게 지원한 반값정산금 중 5억4000만원이 사용됐다. 두 달 반이라는 단기간 강진에서 총 34억3000만원이 소비됐다. 지난해 '강진 반값 여행' 참여자가 강진에서 47억원을 소비했다. 돌려 받은 반값 여행 지원금은 22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69억원이 강진에서 소비돼 관내 전 업종 1~3차 1800개 이상 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은 시작부터 녹

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반값 여행=관광객 퍼주기'라는 부정적 시선을 정면 돌파했고, 관광정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라는 공식을 완성시켰다. 목포대 관광학과 심원섭 교수는 지난 2월 앞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값 여행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생산 유발효과 240억원 이상, 부가가치 유발효과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산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가 유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산 투입 대비 각각 13배, 5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등 반값 여행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증명했다고 한다.

반값 여행은 관광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간절함에서 시작했다. 관광정책과 축제 그리고 지역회폐가 결합된 강진 반값 여행은 강진군에 놀라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닌 확실한 투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팀으로 전국 혁신사례로 꼽혀 벤치마킹이 쇄도한다. 강진 반값 여행 정책의 전국 확산도 이제 머지않아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11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반군인 발루치스탄 해방군(BLA)에 납치돼 멈춘 열차 밖에 일부 승객들이 나와 있다. 파키스탄 당국은 BLA에 탈취된 열차 진압 작전으로 열차에 있던 30명 이상의 반군을 사살했으며 인질을 구출해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질 약 30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서석대

1976년 8월 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회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가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레슬링 자유형에 출전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양정모. 공교롭게도 이날은 꼭 40년 전인 1936년 8월 1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토너 손기정이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애국가 대신 '기미가요'를 들어야 했던 날이었다. 그 만큼 그의 금메달은 한국인에게 감동이었을 것이고 자부심이었다. 그 해 연말 최고 뉴스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신안 해저보물 인양 등을 제치고 양정모의 금메달이 차지할 정도였다.

“어찌 용서가 되겠느냐. 아프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다. 향년 55세로 별세한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에 대한 애도였다. 함평 출신으로 함평농고 1학년때 레슬링에 입문했던 김원기. 가난 때문에 레슬링을 선택했다는 그는 1984년 LA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거두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인박명인 것일까. 몸은 강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는 2017년 7월 27일 불의의 사고로 짧은 생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레슬링의 영웅이면서 우상의 허무한 죽음. “그는 나를 형님이라 따랐지만, 못한 나는 형님 자격이 없었다.”는 게 이 전 국무총리의 회상이었다.

근대 스포츠가 들어온 이후 레슬링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효자 종목이었다. 건국 후 양정모와 김원기의 금메달에 이어 우리나라는 올림픽 레슬링에서만 11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모두 35개의 메달을 따냈다. 88년 서울 올림픽까지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낸 종목도 레슬링과 유도, 복싱, 양궁이 전부였다. 함평농고 김치수·김승민, 전남체고(현 광주체고) 배원호·김승영, 전남대 김원기 등 걸출한 스타도 많이 배출했다. 특히 한국체대를 거쳐 국가대표로 활약한 배원호는 80년대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며 수많은 ‘전설’을 썼다.

‘전설의 레슬러’ 배원호 씨가 광주레슬링협회장에 취임하면서 ‘레슬링의 부활’을 선언하고 나섰다. 1대 김선광 디에스팩 회장과 2대 김제안(전 광주동부교육장) 회장에 이어 3대 통합 회장으로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잇겠다는 포부다. 반세기 가까이 레슬링과 함께 해온 배 회장은 현역시절 선배였던 김원기 선수와 체급은 달랐지만 경쟁자이면서 친구였고 동반자였다. 지금 그의 바람도 김원기가 생전 열망했던 ‘레슬링의 부활과 대중화’다. 힘과 힘이 맞붙는 레슬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까지 기사에게 필수 종목이었다. 반칙도 가식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과 기술, 정신력으로 승부하는 레슬링.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슬링의 가치와 미래를 재정립 하겠다는 ‘老 레슬러의 분투’가 뜨겁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